

社說

소비패턴도 바꾼 코로나 경제심 다시 강화해야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이후의 세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과 잦은 모임, 만남을 가졌지만 지금은 비대면 위주로 인간관계까지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모두가 '되돌릴 수 없다'고들 한다. 경제 분야 역시 비수하며 일제로 소비 패턴 또한 크게 변했다.
국세통계포털 광주·전남 100대 생활업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식문화와 함께 호프집, 노래방 등이 성업했으나 3년 간의 방역조치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2019년 9월과 비교해 간이주점은 -25.0%, 호프전문점 -22.5%, 피시방 -10.8%, 노래방은 -7.2%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호프전문점 -18.0%, 간이주점 -9.0%, 노래방 -7.5%, PC방 -3.5% 등으로 일제히 줄었다.
반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면서 헬스·피부관리 등의 사업자는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가치는 82.7%, 실내스 크린골프점 66.3%, 헬스클럽 39.3%, 스포츠시설운영업 28.4% 등 건강·스포츠를 비롯해 피부관리업 40.3%, 실내장식점 39.4% 등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코로나 특수를 맞

은 배달시장 호황에 음식점과 커피음료점도 마찬가지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업종별 회복은 이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과거와 다른 소비 행태가 자리를 잡았다.
진정되는가 싶던 코로나가 제7차 유행 국면에 들었다. 방역당국은 하루 최대 20만명에 달하는 규모까지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3개월 만에 일일 5천명대로 올라선 위기 상황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기존 접종자의 면역수준 감소, 동절기 실내활동 증가 등 복합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추가 예방접종 집중에 적극 참여하고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도 철저히 해야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률 제고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역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경제 여건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미치는 변화도 뚜렷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의 연속이다. 다시 경제심을 강화해야 한다.

우치동물원 입주한 '평화의 상징' 곰이와 송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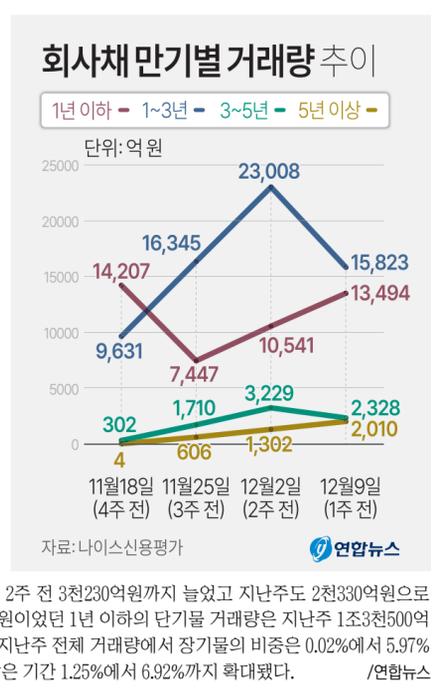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이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실제 공간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층에, 산책 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임시놀이터는 열대조류관과 큰물새장 사이 잔디밭에 마련됐다.
대구 경북대 부속동물병원에서 이송 사육만 에 공개된 곰이와 송강은 활기찬 모습으로 지질 줄 모르고 돌아다녔다. 이들은 적응 기간을 거쳐 안정되면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정도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이때 공식 관람할 수 있다. 또 새끼 '별'과의 3년 만의 가족 상봉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사육 환경과 우치동물원에 새끼와 풍산개 2마리가 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를 타진했고, 광주시가 전격 수락해 대역형식으로 터전을 옮기게 됐다. 곰이가 출산한 6마리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등 4개 지자체로 보내졌으며 우치동물원은 암컷 별을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곰이와 송강을 선물했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배경이다.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에 관리 시설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해 풍산개를 맡기는 동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 강기정 시장은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반려견' 곰이와 송강은 북한에서 태어나 서울 청와대와 문 전 대통령 경남도 양산 사저, 경북대 동물병원을 거쳐 광주의 품에 안겼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를 기원한다. 광주에서 사육 가능한 시행령이 변수이긴 하나 무기한 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산개는 북쪽에서 와서 그런지 진돗개보다 털도 많고 덩치도 크며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 시민들의 많은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다.

그래픽 뉴스

장기물 거래도 본격화...5년물 이상 회사채 유통량 급증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면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장기물의 거래도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3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회사채 유통시장의 거래량을 만기별로 살펴본 결과 지난주(5-9일) 만기 5년 초과인 장기물의 거래량은 2천1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 시장에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맞바뀌어져 실제 거래가 체결된 회사채 규모를 뜻하는 거래량은 장기물의 경우 불과 4주 전(11월 14-18일)만 해도 4억원에 불과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주(11월 21-25일)에는 610억원으로 늘고 2주 전(11월 28일-12월 2일)에는 1천300억원으로 증가하며 최근 3주 새 거래 회복세가 확인됐다.
3년 초과 5년 이하 만기의 증가 물 거래량도 늘어났다. 4주 전에는 300억원에 그쳤던 증가 물 거래량은 2주 전 3천230억원까지 늘었고 지난주도 2천33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4주 전 1조4천200억원이었던 1년 이하의 단기 물 거래량은 지난주 1조3천5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4주 전 대비 지난주 전체 거래량에서 장기물의 비중은 0.02%에서 5.97%까지 늘었고, 증가 물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5%에서 6.92%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



황룡강의 재발전

포함된다.
이처럼 황룡강은 길고 넓은 유역을 거느리고 있어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오늘날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교통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강가에는 나무터가 발달했으며, 장사가 형성돼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선암나무와 선암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광산 30리 누리길' 조성 기대

특히 1988년부터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한때는 송정 관내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됐다. 호남대 앞 서봉동 일대 황룡강에 보를 막아 하루 2만 톤씩 공급했으나 1994년부터 덕남필조장 안공으로 주암호 물로 대체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됐는데 황룡교 제1취수시설만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선운지구 등 주택단지 조성돼 도시화되면서 수변공원으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평림천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정구역 상으로 광산구의 서남부 대부분이 황룡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배냇물을 즐기는 유원지로서 인기 높았다. 또 인근에는 용봉탕으로 유명한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송산

공원엔 느티나무와 미루나무 등이 국적인 키다리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캠핑족들이 즐겨찾고 있다.
황룡강에는 장목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뤄 보는 이의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습지이다. 식물 271종, 어류 27종, 조류 80종, 포유류 13종 등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간다.
황룡강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선운지구 천수공원을 꼽을 수 있다. 하천부지에 꽃밭과 산책로, 그리고 파크골프장 등 휴식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에는 모래언덕과 오랫동안 야생상태로 우거진 숲이 어우러져 운치를 더한다. 특히 석양에 물든 황룡강은 마치 유럽의 어느 강가를 거닐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송산공원에서 시작해 황룡강 천수공원과 장목습지를 지나 동곡 두물머리까지 유장한 물줄기를 따라 구간마다 옛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수리시설의 흔적들이 오래된 시간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최근 광산구는 이러한 빼어난 황룡강의 풍광과 역사성을 아우르는 '광산 30리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밀 벗을 수 있는 유원지로서 인기 높았다. 또 인근에는 용봉탕으로 유명한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송산

시론



박준수
시인·경영학박사

가뭄이 지속되면서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호 저수율이 30%까지 낮아지는 비상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초부터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먼 얘기라만 생각되었던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일상생활의 기본 조건인 물 문제와 직결되어 탁발 위협으로 다가와 있다.
그동안 광주는 물과 관련해서는 걱정 없이 살아왔다. 주요 상수원인 화순 동북호와 순천 주암호가 넉넉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물 가뭄 슬기롭게 극복해야

그런데 물 들어 비와 눈이 오는 날이 많지 않아 강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유례없는 물 가뭄에 직면하고 있다. 아무런 의식없이 지나쳤던 강과 호수에서 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부터 솔선해서 물을 절약하

광주전남연구원
지역현안 제언



김만호
책임연구위원

올해 12월7일 광주시의회(안평환 의원)에서 주최한 '전남 일산방직 부지 제대로 개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핵심은 광주의 마지막 근대산업 유산을 어떻게 보존 혹은 철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30만㎡(9만여평) 전남 일산방직 부지에는 현재 30여개의 공장 관련 시설이 있다. 화력발전소, 보일러실, 고가수조, 굴뚝, 동상, 국가계량대 등 일부 시설은 이미 보존하기로 결정했으나, 나머지 27개의 공장건축물은 보존 및 활용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T/F소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27개의 공장건축물을 평가하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역사적 가치, 물리적 가치,

장소 경관적 가치, 사회 문화적 가치, 지속적 활용가치가 그것이다. 이 기준을 통해 11차례에 걸친 합동회의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상위 10순위에 오른 공장건축물을 '우선 보존 고려대상'으로 제안했다.
사실, 전남 일산방직 관련 시설들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다. 1937년에 건립된 '서울 구 경성방직 사무동'이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광주의 마지막 근대산업유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비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미래세대에게 전해줄만한 유산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미래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 이러한 유산에 주목했다.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에는 미래유산으로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모든 것으로, 서울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 온 공동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달 100년 후의 보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지정문화재가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했다면, 미래유산은 시민들의 기억이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유산의 훼손이나 멸실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경기도 파주시, 부산시 등에서 미래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유산의 발굴과 제안, 선정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의 충돌과 균열 속에서 미래유산 정책의 시행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서두에서 언급한 전남 일산방직 부지 개발 논의를 비롯해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문

오늘, 우리를 위한 미래유산

제, 광천동시민아파트 보존 논의의 등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번 카타리 월드컵에서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대표팀의 경기에 박수를 쳤던 이유 중 하나는 '빌드업(Build-up) 축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빌드업은 '티키타카(Tiki-Taka)' 패스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피하면서 공격을 전개해 가는 것이다.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도 정책의 빌드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시민과 전문가들이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선정하면, 행정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 결국 시민들의 기억이 담긴 유산을 후세에 전한다는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유산은 장기적으로 미래세대 위해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미래유산을 곱씹어 생각하고 향유하게 되는 것은 다른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유산은 미래의 후손을 위한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위한 유산인 것이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주택화재경보기는 생명 지켜주는 수호신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7천590건 중 겨울 발생은 2천706건(35.6%)으로 계절 중 두 번째로 높다. 또 단독주택에서만 15.8%인 1천203건이 발생해 사망자는 전체 66명 중 30명인 45%에 달한다.
이러한 큰 피해를 야기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은 주택용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방과 거실에(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 가능하다.
전남소방에서는 관련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도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주택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신종우·여수소방서소장정대장>

사회문제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돼야

최근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피해 금액이 1조4천억원에 달하고 검거된 인원은 5만명에 육박하며 구속자는 669명으로 집계됐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 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다 입원 및 치료행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방화 등 고의 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기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이 있다.
보험사기가 누적되어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제도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김창희·곡성경찰서경무계장>